

6개 문중 종친회 “호남차별의 뿌리 ‘송강고’ 명칭 변경재요구”

광산이씨·나주나씨·문화류씨·고성정씨·전주이씨·창영조씨

송강고 “명칭변경 여론수렴 어려워 변경 논의 잠정 중단”

조선시대 수많은 호남 인물을 죽임으로 내몬 송강(松江) 정철의 호를 교명으로 사용한 전남 1호 국립대학교인 송강고등학교에 대한 명칭 변경 요구가 다시 제기됐다.

학교 측은 “명칭변경에 대한 지역 사회 여론수렴이 어려워 논의를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다.

광산이씨·나주나씨·문화류씨·고성정씨·전주이씨·창영조씨 종친회는 24일 “전남 1호 국립대학교인 송강고의 명칭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며 “전남교육청 등에 교명 변경을 다시 요구했다”고 밝혔다.

종친회 등은 “조선시대 최대의 비극인 기축사회의 중심에 서있던 인물이 송강 정철이다”며 “당시 호남인물 400여명 포함해 1000여명

을 억울한 죽임으로 내몰았던 기축사회의 위관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또 “선조의 하수인으로 사리사욕에 매몰돼 당리당락과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자신을 키워주고 출세하도록 도와준 호남을 배신한 사람이다”며 “기축사화 이후 호남은 벼슬길 등용이 제한됐으며 지금까지 지역 차별의 역사적 뿌리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축사화의 중심에 서있던 정철을 문학사적으로 의미 있는 인물이라는 이유로 존경할만한 인물로 내세우고 기념하며 인성을 중요시하는 국립대학교의 교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는 지난해 교명 명칭 변경 재기

이후 ‘송강’의 한문을 한글로 풀이한 ‘솔가람고교’로 명칭 변경을 추진해 또 한번 지역사회를 농락했고 교육청에서 받아주지 않았다”며 “지난 2일까지였던 명칭변경 신청서도 제출하지 않아 ‘송강고’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강 정철은 세상의 모범으로서 존경하고 기념할 가치가 있는 인물이 결코 아니다”며 “송강고 교명 변경을 통해 뒤러린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6개 문중 종친회에서 송강고 명칭 변경을 재차 요구했다”며 “교육청은 학교에 명칭변경을 요구할 권한이 없고 학교 측에서 변경 신청을 할 경우 요건이 충족되면 허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송강고 측이 지난 2일까지 기한이었던 명칭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오는 31일까지 서류 보완 등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강고 측은 “솔가람고교로 명칭을 변경했지



만 교육청, 종친회 등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현재로서는 명칭 변경을 위한 학생·학부모·지역사회 여론 수렴 과정이 힘들어 지난해 12월 이후 논의를 잠정 중단했으며 기존의 명칭을 사용할 계획이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지난 2021년 전남지역 1호 국립대학학

교도 문을 연 ‘송강고’는 개교 전부터 명칭 논란이 불거졌으며 학교 측은 공청회 등을 통해 지난해 7월 ‘솔가람고’로 교명 변경 신청을 했다. 하지만 솔가람도 송강의 뜻과 똑같다는 문제가 제기된 이후 명칭 변경에 대한 논의는 답보 상태에 빠졌다.

광주시 “먹는 샘물 차안에 두고 마시지 마세요”

시중유통 14개 제품 대상 검사 모두 적합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먹는샘물 14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광주 지역 대형 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국내·외 먹는 샘물에 대해 식중독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살모넬라·쉬겔라 등 미생물 항목과 방사성물질인 우라늄 등 모두 52개 항목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먹는 샘물 유통 과정 중 페트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티몬과 포름알데히드 등 감시 항목 2개를 추가 조사했다.

검사 결과, 14개 제품 모두 먹는물 기준에 적합하고, 감시항목도 감시 기준을 모두 충족해 음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구원에서 실시한 먹는 샘물 중 미량의 유해물질 조사 결과, 안티몬은 국내 감시 기준 이내지만, 보관온도가 높고 보관기간이 길어질수록 페트병에서 용출되는 안티몬의 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슬베기자

무안공항, ‘국제선 다양화’...기타큐슈·나고야·장가계·울란바토르 예정

“신규 취항 항공사 많아지도록 앞으로도 재정지원 등 더욱 힘쓸 것”



김영록 전남도지사(가운데)가 24일 오전 무안국제공항 여객청사서 열린 하이에어 국제선(무안~기타큐슈) 취항식 행사에서 기장에게 꽃다발을 증정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무안국제공항이 국제선 다양화를 통한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해 힘찬 날갯짓

을 하고 있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내 소형항공사 하

이에어가 이날 오전 11시 무안국제공항에서 취항식을 하고 일본 기타큐슈 신규 노선 운항을 본격 시작했다.

취항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 서삼석 국회의원, 김원국 하이에어 공동대표 등이 참석해 꽃다발 증정, 테이프 커팅 등 기타큐슈 신규취항을 축하했다.

그동안 무안국제공항 국제선은 베트남 나트랑과 다낭을 오가는 2개 항공편뿐이었다.

하지만 이날 하이에어의 기타큐슈 노선 운항을 시작으로 6월 대한항공 나고야 노선과 중국 항공사인 사천항공의 장가계 노선, 7월 몽골 항공사인 훈누항공의 울란바토르 노선 운항이 잇따라 예정됐다.

기타큐슈 노선은 무안에서 오전 11시40분 출발해 오후 1시30분 기타큐슈에 도착하고, 돌아오는 항공편은 오후 2시10분 출발해 오후 4시 무안공항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매주 월·수·목·토·일요일 5회 운항한다.

기타큐슈는 일본 규슈지역 후쿠오카현 북부에 위치한 도시로, 일본 대표 공업도시이면서

도 대표적 환경도시로 꼽힌다.

규슈에서 후쿠오카시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로 한국에서 해외여행지로 인기가 많은 지역이다. 대표적 관광지로 세계 최초 철도 해저 터널인 간몬터널, 고쿠라 성과 정원 등이 있다.

김영록 지사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의 신호탄이 될 하이에어 국제선 취항식이 열리게 된 것을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하이에어처럼 무안국제공항에 신규 취항하는 항공사가 많아지도록 앞으로도 재정 지원 등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안공항을 살리는 최선의 방법은 광주 민간·군공항의 무안공항 동반 이전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광주시, 무안군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산 무안군수는 “무안국제공항이 코로나 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았지만 이번 국제선 취항으로 활기를 찾길 바란다”며 에어하이의 기타큐슈 노선 취항을 축하했다.

무안=이성기기자

금·토요일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SUNCHEON

Korea's Ecological Capital, Suncheon

순천시 대표이사 박옥천
 순천시 대표이사 김도일
 순천시 대표이사 한필호
 순천시 대표이사 김동철
 순천시 대표이사 박정성
 순천시 대표이사 김대연
 순천시 대표이사 김성기
 순천시 대표이사 홍우
 순천시 대표이사 임중윤
 순천시 대표이사 김대연
 순천시 대표이사 김성기
 순천시 대표이사 홍우
 순천시 대표이사 임중윤
 순천시 대표이사 김대연
 순천시 대표이사 김성기
 순천시 대표이사 홍우
 순천시 대표이사 임중윤

대한민국의 생태수도 일류 순천